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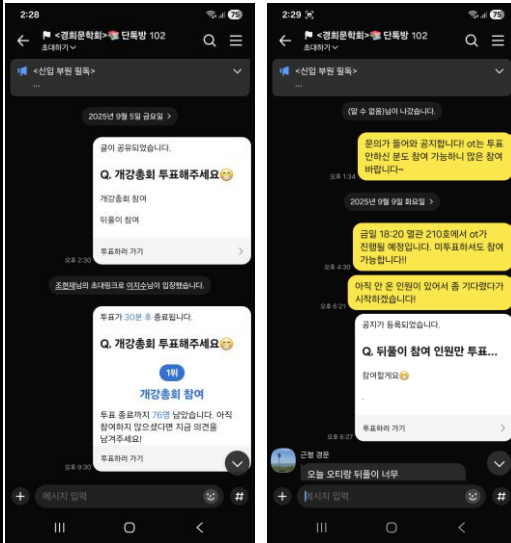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개강총회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5.09.09.18:00~22:00	비고	2025-2 경희문학회 OT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210호</p> <p><b>활동내용</b> : 2025학년도 2학기 경희문학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부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개강총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동아리의 비전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현재 가등록 상태인 경희문학회가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하기 위해 필요한 6개월 이상의 활동 증빙 요건 및 9월 22일로 예정된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였다. 이어지는 학기 운영 계획 발표에서는 조지 오웰의 『1984』(9월)와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0~11월)를 주제로 하는 정기 합평회 및 문학 스터디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였다. 또한 11월에 개최될 '문학인의 밤(MT)'과 12월 발행 예정인 동아리 정기 문집의 제작 방향을 안내하여 부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였다. 특히 동아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행사 기획과 준비를 담당하는 기획부, 문집 발행과 원고 교정을 맡는 편집부, 그리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는 집행부로 조직 체계를 세분화하고 각 분과별 임원진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공식 행사 종료 후에는 학교 앞 주점 '야야'와 중앙상가 '편비어킹'에서 차례로 회식을 진행하며, 신입 부원과 기존 부원이 각자의 문학적 취향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속감을 강화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p>		

**소감** :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신입 회원들에게 동아리의 명확한 방향성과 활동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학기 활동의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체계적인 임원진 구성을 통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경희문학회가 지속 가능한 문학 공동체로서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였다.

**기타** : 멀티미디어관 210호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현장 사진과 회식 장소인 마을 야야 및 편비어킹에서 부원들의 단체 활동 사진과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였다.

## 1.개강총회 수요조사



## 2.개강총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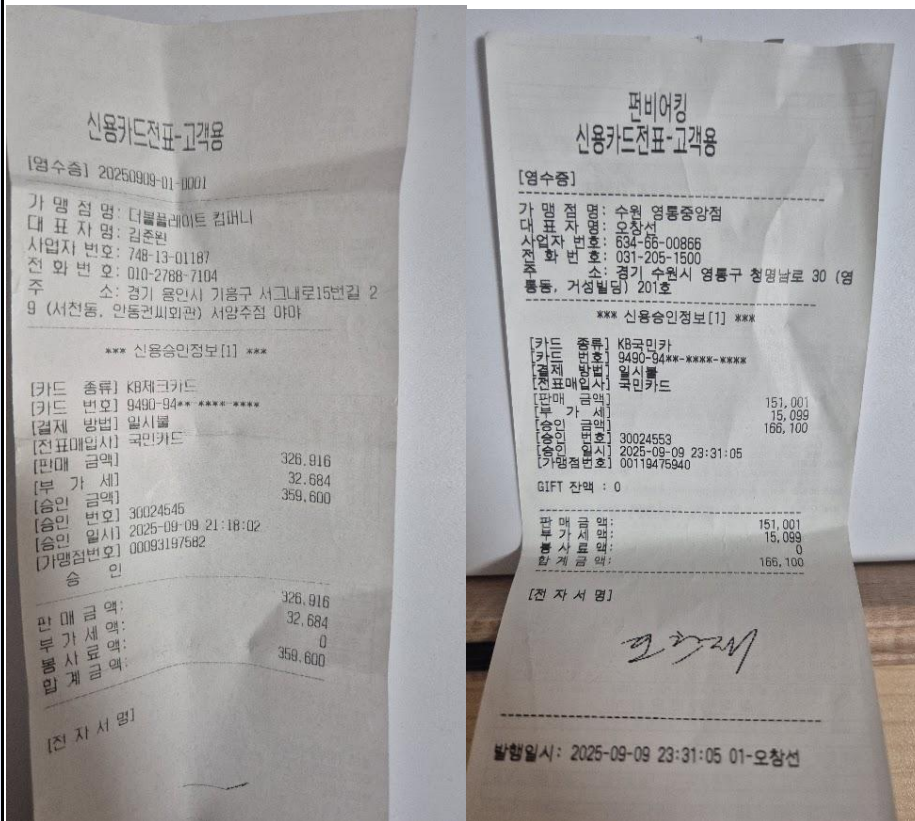
활동사진  
(3매 이상)



### 3.회식



### 4. 결제 영수증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 (위)

# 동아리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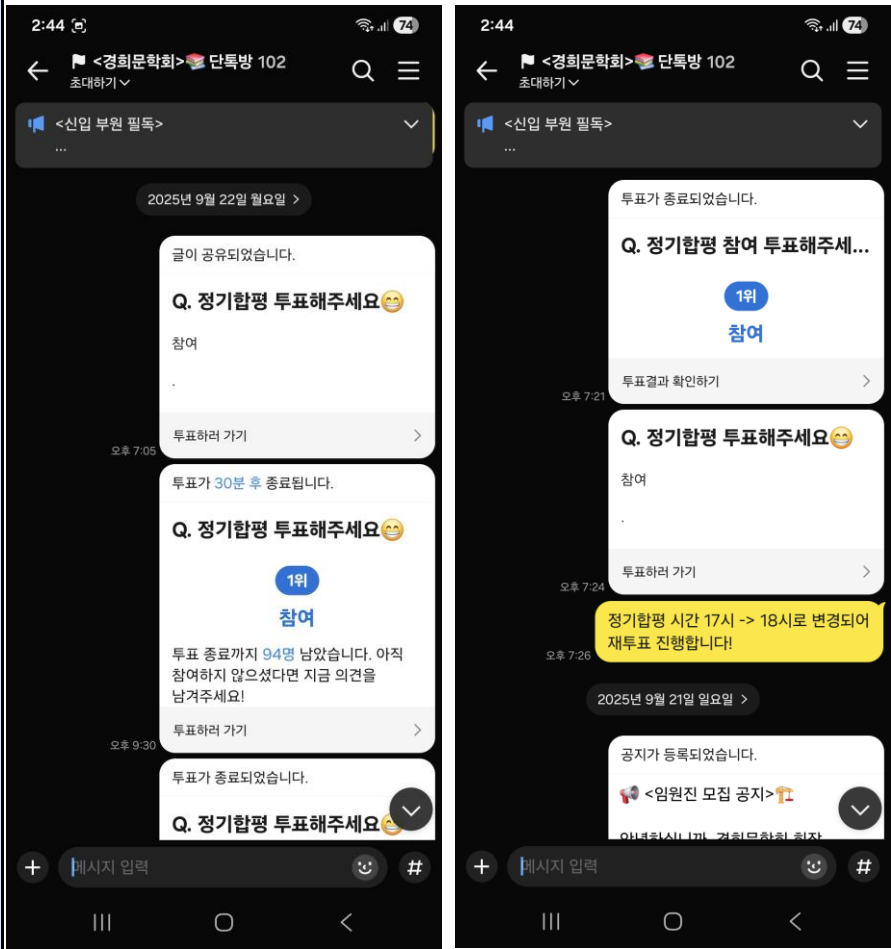
활동명	정기합평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5.09.23. 18:30 ~ 20:00	비고	정기합평 4회차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210호</p> <p><b>활동내용</b> : 2025학년도 2학기 첫 번째 정기 합평회를 개최하여 선정 도서에 대한 심도 있는 비평과 부원들의 개인 창작물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가졌다. 먼저 9월 '이달의 문학'으로 선정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주제로 문학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작가 조지 오웰의 생애와 그가 겪은 제국주의적 배경이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동물농장』과 『1984』를 관통하는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와 '빅 브라더'를 통한 감시 체계, 언어 및 사고의 통제라는 주제 의식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부원들이 각자 집필해 온 시, 소설 등 개인 작품을 소개하고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평 방식은 작품에 대한 첫인상을 나누는 인상비평으로 시작하여, 작가 해설을 곁들인 전문적인 본비평으로 이어졌으며, 작품의 구조와 표현 기법에 대한 다각도의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는 현대 사회의 정보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1984』의 감시 사회와 연결 지어 논의하며, 문학적 상상력이 현실 사회에 던지는 비판적 메시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p> <p><b>소감</b> : 고전 작품인 『1984』를 통해 현대 사회의 자유와 통제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시금 성찰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부원들의 창작물에 대해 진지하고 날카로운 비평이</p>		

오가면서 서로의 문학적 견문을 넓히고 창작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었다.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합평 과정을 통해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작품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기타** : 정기 합평회 진행 모습과 토론 내용을 정리한 발제 자료(PPT)를 활동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 합평 종료 후에는 인근 식당(꽃찬짬뽕)으로 이동하여 부원 간의 친목을 다지며 학기 중 활동에 대한 열의를 확인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 1. 정기합평 수요조사



### 2. 활동 사진





### 3. 사용 ppt



4

### 목차

1. 이달의 문학 소개
2. 개인 작품 소개
3. 인상비평 및 작가 해설
4. 개인별 비평
5. 전체 토론

#### 1. 이달의 문학 소개

9월 이달의 문학  
- 1984, 조지 오웰



#### 2. 개인작품 소개



- 개인 작품 소개 및 낭독

#### 3. 인상비평 및 작가 해설



- 개인별 인상비평 진행
- 작품에 대한 작가 해설

인상비평이란? 작품을 읽거나 감상한 뒤, 그 작품이 주는 개인적인 느낌·인상·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비평 방식

#### 4. 본비평



- 개인별 본비평 진행

본비평이란? 작품을 정독한 뒤, 작품 자체의 형식, 내용, 기법,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비평 방식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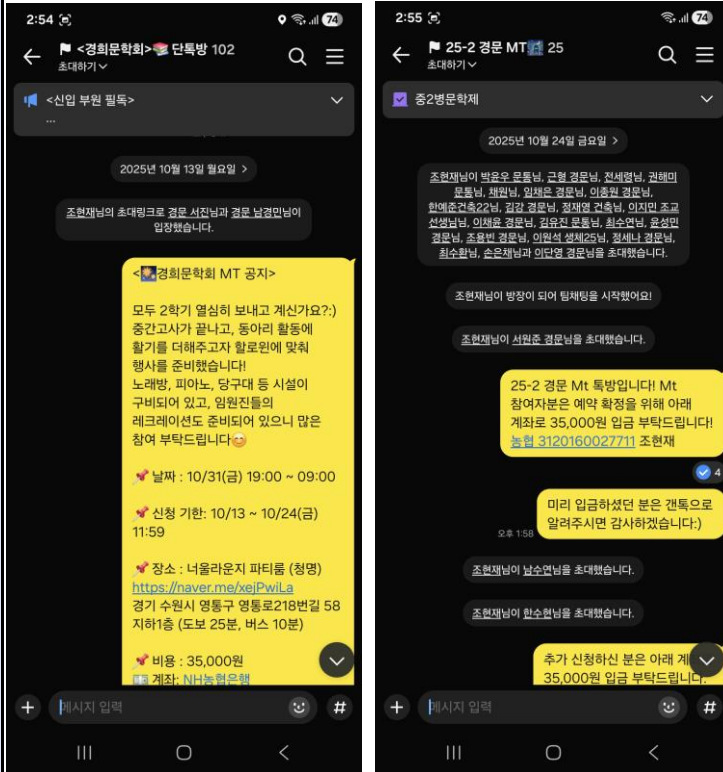
활동명	문학인의 밤 (MT)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5.10.30. 19:30 ~ 2025.10.31. 09:00	비고	2025-2 경희문학회 MT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너울라운지 파티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8번길 58 지하1층)</p> <p>활동내용 :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경희문학회 부원 약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1회 정기 MT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문학이라는 동아리의 정체성을 녹여낸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우선 파티룸 입실 후 4인 1조로 총 5개의 팀을 랜덤하게 결성하고 독창적인 팀명을 결정하며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p> <p>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작품 이름 많이 대기' 게임에서는 5분이라는 제한 시간 동안 팀 별로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의 제목을 최대한 많이 적어내며 각자의 독서력을 뽐냈고, 이어지는 '문학 스피드 퀴즈'에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유명 작품의 구절만 보고 제목과 작가를 맞히는 박진감 넘치는 경합을 벌였다. 특히 '중2병 문학기' 세션에서는 부원들이 과거에 작성했거나 현장에서 즉석으로 집필한 감성적인 문장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문학적 감수성을 위트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야기 만들기 게임'을 통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해 모든 팀원이 협력하여 하나의 단편 소설을 완성해 나가는 집단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p>		

밤이 깊어가는 동안에는 사전에 지정된 마니또에게 비밀 미션을 수행하는 '마니또 게임'을 진행하여 부원들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모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승팀에게 문학 문구 세트를 수여하는 시상식을 진행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후 부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밤새도록 문학적 견해와 각자의 창작 고민을 나누며 학기 중 활동에 대한 깊은 애착을 확인하였다.

**소감 :** 경희문학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MT는 동아리 창설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서로의 존재를 깊이 있게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학이라는 소재를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에 접목함으로써 부원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강의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밤새도록 이어진 문학적 대화는 부원 각자에게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였으며, 동아리에 대한 소속감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었다. 2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한 명의 이탈이나 사고 없이 질서 정연하게 행사에 임해준 덕분에 경희문학회가 단순한 취미 모임을 넘어 탄탄한 결속력을 갖춘 공동체로 성장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MT를 기점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가오는 문집 발행과 향후 중앙동아리 승격 이후의 활동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기타 :** 기획부에서 제작한 97페이지 분량의 MT 진행 PPT 자료와 파티룸 예약 내역, 장보기 영수증 및 활동 현장 사진을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24명 부원의 명단과 각 팀별로 작성한 창작물 결과물 또한 보존하여 추후 동아리 활동 백서 및 중앙동아리 활동 보고서의 핵심 근거 자료로 첨부할 예정이다.

## 1. 임원진 회의록 및 mt 수요조사



활동사진

(3매 이상)

## 2. mt 준비과정 및 활동내용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 (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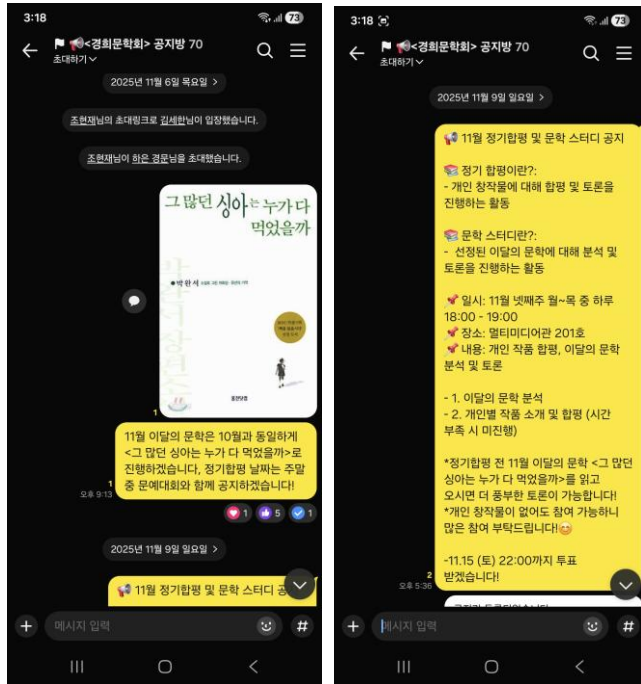
활동명	정기합평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5.11.24. 18:30 ~ 20:00	비고	정기합평 5회차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108호</p> <p><b>활동내용</b> : 2025학년도 2학기 다섯 번째 정기 합평회를 개최하여 박완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한 문학 스터디와 부원들의 개인 창작물 합평을 진행하였다.</p> <p>1부 문학 스터디에서는 작가 박완서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격동기를 거치며 겪은 작가의 개인사적 아픔이 어떻게 문학적 뿌리가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싱아'가 상징하는 유년 시절의 순수함과 상실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벌였으며, 개성 박적골에서 서울 현저동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변화가 주인공의 자아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폐허가 된 서울을 목격하며 결심한 '기록자로서의 사명'을 통해 문학이 지닌 사회적·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p> <p>2부 개인 작품 합평 순서에서는 부원들이 제출한 시와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물을 검토하였다. 이번 회차에서는 사회자가 원형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한 줄 소감'을 시작으로 인상비평과 작가 해설을 곁들인 본비평으로 이어졌다. 10여</p>		

명의 참석 부원들은 각 작품의 문장 표현, 구조적 완성도, 주제 의식에 대해 다각도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특히 작가가 의도한 복선이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감정의 과잉을 절제하며 서사를 이끌어가는 방법론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소감 :** 박완서 작가의 문장을 통해 개인의 기억이 어떻게 보편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유년 시절과 성장통을 공유함으로써 부원들 간의 정서적 교감이 한층 깊어졌다. 또한, 동료 부원들의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합평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집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작품의 메시지처럼, 우리 동아리 활동 역시 각자의 문학적 성장을 기록하는 소중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기타 :**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 사전 제작된 합평 가이드를 배부하였으며, 조별 자기소개와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내실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합평회에서 논의된 주요 피드백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각 창작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해당 원고들은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이후 발행될 동아리 정기 문집에 수록할 예정이다. 활동 증빙을 위한 현장 사진과 발제 자료 역시 기록물로 보존하였다.

# 1. 정기합평 수요조사



활동사진

(3매 이상)

# 2. 활동 사진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 (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정기합평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5.11.25. 18:30 ~ 20:00	비고	정기합평 6회차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210호</p> <p>활동내용 : 2025학년도 2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6회 정기 합평회를 개최하여, 부원들이 직접 집필한 네 가지 주요 작품(소설 1편, 시 3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비평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합평회는 작품의 장르가 다양했던 만큼, 각 장르에 적합한 비평 방식인 인상비평과 본비평을 병행하여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하였다.</p> <p>첫 번째로 조현재 부원의 소설 「어머니의 된장국」에 대한 합평을 진행하였다. 택시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서울 생활의 고단함을 풀어낸 서사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된장국'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시각과 후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부원들은 작품 속 인물들이 나누는 위로의 방식이 독자에게 주는 따뜻한 공감대에 대해 논의하였다.</p> <p>두 번째로 정훈 부원의 시 「아가미」를 다루었다. '쓸모가 없어진 아가미'와 '체리맛 타이어' 등 독특하고 초현실적인 비유를 통해 현대인의 소외감과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망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묘사했는지 토론하였다. 시적 화자의 고립된 상황을 바다와 육지의 경계로 표현한 점에 대해 다양한 상징적 해석이 오갔다.</p>		

세 번째로 소예찬 부원의 시 「때묻다」에 대해서는 청춘의 '용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목줄'이나 '아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성찰적으로 그려낸 점에 주목하였다. '뿔 잃은 망아지'라는 시어를 통해 순수함을 잃어가는 성장의 아픔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대목에서 부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으며,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진솔한 태도에 대해 호평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김근형 부원의 시 「온새미로」를 합평하였다. '미쁘다', '산다라', '논개' 등 아름다운 우리말 사투리와 고어를 활용하여 언어의 소중함과 민족적 정서를 담아낸 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칠후 같은 밤과 차가운 가을밤을 배경으로 우리말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자랑스러움을 형상화한 시적 완성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모든 합평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소감:** 소설과 시를 아우르는 폭넓은 창작물들을 통해 부원들의 한층 깊어진 문학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작가는 자신의 창작 의도가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고, 독자인 부원들은 타인의 삶과 감성이 투영된 문장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각적인 시선을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건강한 합평 문화가 정착되었음을 실감하였으며, 이러한 교류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동아리 전체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귀중한 발판이 되었다.

**기타 :** 각 작품별로 논의된 수정 사항과 비평 내용을 정리하여 작가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합평을 거친 해당 작품들은 최종 교정을 거쳐 12월에 발행될 정기 문집의 주요 수록작으로 선정하였다. 활동 증빙을 위한 현장 사진과 합평 가이드 자료를 보존하였으며, 본 활동 기록은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를 위한 2학기 정기 활동 보고서의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 활동 사진



활동사진  
(3매 이상)





## 2. 합평작

아가미

나 꿈을 찢어요—  
그대가 흠뻑 젖은 나를  
잠자리채로 건지는 그런 꿈

나의 아가미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네모난 바퀴, 체리맛 타이어  
그리고 나의 아가미.

빠꼼거려요  
달콤하게 또 가늘게.  
빠꼼거린 입모양으로 사랑을 그리죠

바다가 마를 때 나는 이미 젖어 있어요  
그대는 어디에서 내 젖은 몸을 읽나요  
죽어버릴 나의 아가미. 아가미.

때문다

지나고 보니  
용기였다

후회라거나  
민망하다는 것이

지나는 재미 한 마리에 무심하듯  
세상도 내게 무심하듯

용기는  
내 아주 작은 목줄이었다 **독특한 비유**

때론 힘내어 **짓어도** 보고  
저 멀리 **뛰어대기도** 했다

커보니 작은 **목줄**이었겠지 **청춘의 용기->아집, 프레임에 갇혀버**

바라는 것이 없고  
기대하지 않으니  
뿔 잃은 망아지가 되었겠지 **뿔 없는 유니콘? = 특별함을 잃**

널리 자유하던 때를 그리니  
술 한잔 머금으니 **청춘을 그리워**

조금은 풀어지는 듯  
지गत이 토닥이듯  
나를 사랑하듯

지난날과는 다르게 **역설: 절을 때와 바뀐 부분도 있**  
아니 다르지 않듯 **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음**

온새미로 -김근¶

오늘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난  
자그만 글을 적기 시작하며,  
사소한 생각이 가득한 차가운 가을밤  
문득 느껴지는 우리 말의 소중함

난 '창조'라 생각하진 않아 나의 글이  
이미 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뿐이니  
그뿐 이니? 슬픈 감정, 기쁜 마음 터놓으니  
그 모든 말들이 온전히 우리의 것일 터이니

전하는 사랑도,  
나누고픈 상처, 아픔, 너에게 전하는 위로,  
그리고 꿈꾸는 아득한 희망도

타인의 말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전하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압단 걸

고독한 밤에 다시 깨달음에  
\*미쁘게 백성을 돌보던 당신의  
\*산다란 마음이 가늠이 되지도 않는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차갑게 내리는 \*눈개 속에도  
당신은 굳게 \*다소는 듯해  
이 나라 이 땅의 티끌마저도  
다 사랑해주는 것 같아

우리의 글과 말이 \*온새미로 가득한  
그대가 꿈을 꿔던 세상 위에 \*나르샤  
그대를 \*흐노니 하늘의 \*미리내를 보다  
스쳐 간 \*별찌 마치 그대인 듯 싶어라

- \*미쁘다 : 진실하다
- \*산다란 : 굳세고 곳곳한
- \*눈개 : 인개비와 이슬비 사이의 가는 비
- \*다소다 : 애뜻하게 사랑하다
- \*온새미로 :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 \*나르샤 : 날아오르다
- \*흐노다 : 몹시 그리워하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가지곤  
서로를 상처입히거나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게, 우리의 자랑을 죽이고  
마침내 우리를 욕보는 행위임을 아는데  
너와 나 우리는 부끄럽지도 않던가?

크게 쓰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말을 무기로  
우리의 목에 삶의 무게를  
달아두진 말아줬으면 한다.

작게 전하는 위로와 사랑의 말들이  
땅 위에 퍼져 하늘에 닿을 때까지  
서로를 보듬어 주면 어떨까?

\*아스라이 땅을 비추는 \*한 별 아래  
생각함에 울컥하네 새까만 밤에  
그대 있는 하늘 올려보기 민망해  
부끄러운 삶을 포기하지 못해 미안해

\*달무리를 벗겨내는 저 \*달별 아래  
울컥하네 뿔뿔하게 차가운 맘에  
\*닷고 \*괴는 말이 이 땅 위에 물들게  
하늘 우리러서 한 점 부끄럼 없게

우리의 글과 말이 온새미로 가득한  
그대가 꿈을 꿔던 세상 위에 나르샤  
그대를 흐노니 하늘의 미리내를 보다  
스쳐 간 별찌 마치 그대인 듯 싶어라

- \*미리내 : 은하수 /\*별찌 : 유성우, 별뿔별
- \*아스라이 : 아득히
- \*한 별 : 크고 밝은 별
- \*달무리 : 달 근처의 하얀 테
- \*달별 : 카시오페아 별자리
- \*닷다 : 애뜻하게 사랑하다
- \*괴다 : 끊임없이 사랑하다

<ΔT'과 싸락눈>

싸락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지

도시의 휘황찬란 광원을 뚫고  
눈꽃과 눈꽃과 눈꽃  
사이를 이리저리 굴절하던  
창백하고 희미하던 달빛 아래서

그대와 함께 멈추어버린

저 하늘과 대지  
자연과 사람과 예술  
보여와 뉴턴과 아인슈타인

한 번의 움직임과 한 번의 머무름  
방직자는 실을 엮어  
찬란한 선을 흐르는 방점을 찍으니

ΔT=γΔT'

그리하여 그대는 아름다우라  
어느 찰나 그 가운데 영원 속에서

한 줌의 싸락눈을 사랑하라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 (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도예학과 졸업전시회 탐방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5.11.26. 17:30 ~ 20:00	비고	도예학과 졸업전시 탐방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A&amp;D홀</p> <p><b>활동내용</b> : 2025학년도 2학기 공식 활동의 일환으로, 경희문학회 부원이 작가로 참여한 도예학과 졸업전시회를 방문하여 단체 관람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은 문학이라는 텍스트 중심의 예술을 넘어,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도자 예술과의 교류를 통해 창작의 영감을 얻고 부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실에 방문한 부원들은 도예학과 소속 부원의 안내를 받으며 출품작들을 감상하였고, 각 작품에 담긴 예술적 철학과 제작 공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특히 점토라는 물성이 작가의 손길을 거쳐 하나의 고유한 서사를 가진 조형물로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문학적 상상력이 시각화되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관람 도중 인상 깊은 작품의 형태나 질감을 문학적 비유로 표현해보는 즉흥적인 스터디를 병행하였으며, 서로 다른 예술 분과가 공유하는 '창작의 고통과 희열'이라는 공통 가치를 확인하며 문학적 소재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p> <p><b>소감</b> : 동료 부원의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현장에 함께하며 경희문학회만의 끈끈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흙을 빚어 구워내는 과정이 문장을 다듬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문학의 창작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시각적인 자극이</p>		

텍스트로 치환될 때 발생하는 새로운 예술적 에너지를 경험하였다. 전공이 다른 부원들이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과정은 우리 동아리가 지향하는 융복합적 문학 활동의 가치를 잘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 관람을 통해 얻은 감각적 경험은 부원들에게 새로운 집필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다가올 정기 문집 발행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기타** : 전시회장 내 단체 관람 사진과 부원의 출품작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 전시 관람 후 느낀 감상 중 일부는 12월 문집에 짧은 수필이나 시의 형태로 수록하기로 하였다.

1. 활동 사진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 (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문학기행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1.04. 11:30 ~ 21:00	비고	문학기행 3회차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성수동 카페거리, 나인원 보드게임 카페</p> <p>활동내용 : 2026년 1월 4일, 동계 방학 중 부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 일대에서 제3회 문학기행을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하여 스케이트를 타며 동절기 신체 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최근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성수동 일대 카페 거리를 방문하였다. 특색 있는 공간에서 차를 나누며 최근 문학계의 트렌드와 각자의 방학 중 창작 현황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시간에는 건국대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건국대학교 학생들과 보드게임을 진행하였다. 전략 게임 및 협동 게임을 통해 타 대학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였으며, 문학이라는 공통분모 외에도 다양한 놀이 문화를 매개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이번 기행은 기존의 정적인 합평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문화 체험과 외부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p> <p>소감 :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벗어나 서울의 다양한 문화 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부원들 간의 유대감이 한층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오전의 역동적인 스포츠 활동과 오후의 정적인 카페 담소, 그리고 저녁의 외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로 이어지는 짜임새 있는 일정을</p>		

통해 부원들의 활동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건국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은 우리 동아리의 외연을 넓히고 타 대학의 문학 및 예술 동아리 운영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문화 체험이 부원들에게 새로운 창작적 영감을 제공하고, 동계 방학 중에도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지속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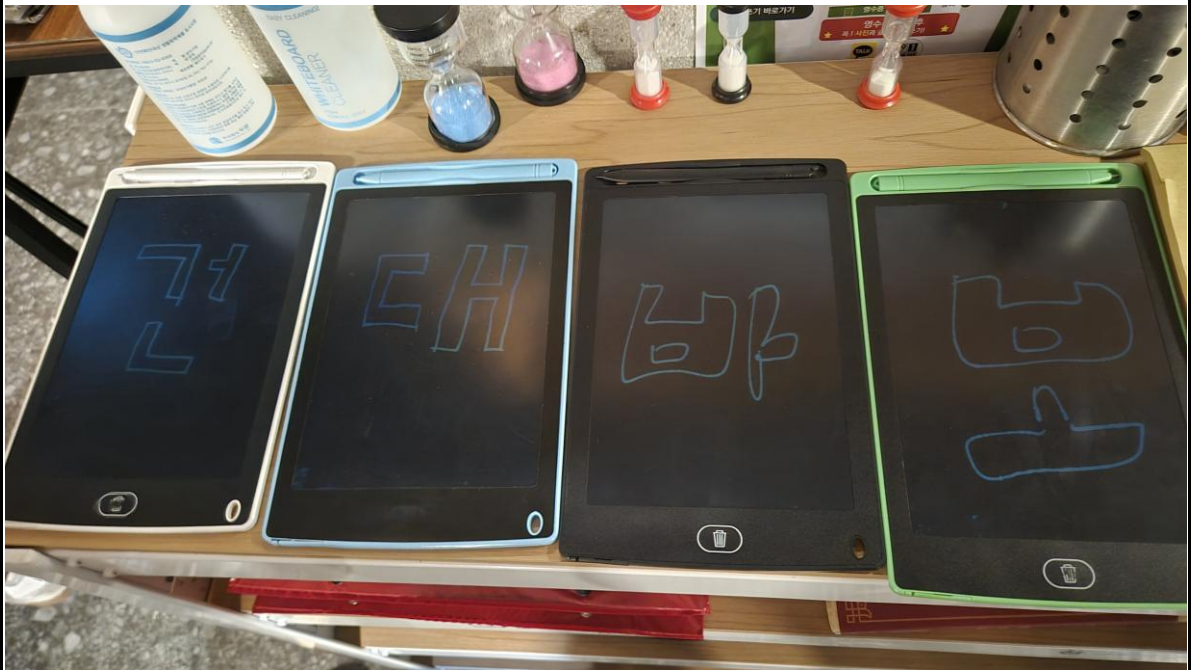
**기타 :** 각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과 건국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현장 기록을 확보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형성된 타 대학과의 네트워크는 향후 연합 합평회나 교류 행사 기획 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 활동 사진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 (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 동아리박람회 부스 참가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3.11. 09:00~17:00	비고	2026-1 동아리박람회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제2기숙사 앞 대운동장 경희문학회 부스</p> <p><b>활동내용</b> : 2026년 3월 11일, 정식 중앙동아리 승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가등록 동아리 자격으로 교내 동아리 박람회에 참가하여 대규모 신입 부원 모집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박람회의 시각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행사 전 본회의 정체성을 투명한 공식 로고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홍보 포스터, 상세 설명 패널, 플랜카드를 부스 전면에 배치하여 학우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행사 당일에는 이른 오전 10시부터 부스 조성을 시작하여 11시부터 17시까지 상시 홍보 체계를 가동하였으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본회만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였다. 특히 문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직접 개발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문학적 취향을 분석해 주는 '나의 문BTI' 검사를 시행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문학적 상식을 흥미롭게 풀어낸 '문학 스피드 퀴즈'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퀴즈 10문항 이상을 맞힌 참여자들에게는 준비한 소정의 간식 꾸러미를 증정함으로써 행사 종료 시까지 부스 내 활발한 참여와 소통의 분위기를 유지하였다.</p> <p><b>소감</b> : 가등록 동아리로서 처음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동아리의 존재감을 드러낸 이번</p>		

박람회는 본회의 기획 역량과 운영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쓰는 활동을 넘어 문학을 IT 기술(애플리케이션) 및 퀴즈와 접목하여 대중적인 놀이 문화로 재해석함으로써, 많은 학우로부터 "신선하고 체계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6시간이 넘는 운영 시간 동안 임원진과 부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많은 방문객을 응대하는 과정을 통해 중앙동아리로 승격된 이후에도 대규모 행사를 자율적이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실무적 자질과 확신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확보된 높은 인지도와 신입 부원들의 열의는 본회가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문학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타 :** 동아리 박람회 부스 설치 전경 및 직접 디자인한 로고·포스터·패널·플랜카드 결과물,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과 퀴즈 이벤트 참여 사진을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으며, 홍보물 및 활동 사진을 첨부하였다.

동아리 배치도: 3/11 (수)

- |             |                  |              |
|-------------|------------------|--------------|
| 1 - 비람개비    | 26 - 등대          | 36 - SFC     |
| 2 - 빛사냥     | 27 - 쿠라운드        | 37 - 민화통신    |
| 3 - 필사그래피   | 28 - BMB         | 38 - BCM     |
| 4 - KUCO    | 29 - 설록          | 39 - KHUCC   |
| 5 - 드래프스    | 30 - CCC         | 40 - 스왈링     |
| 6 - 아뉴스데이   | 31 - 경희대 축구부 프렌드 | 41 - 쿠디      |
| 7 - 탈무드     | 32 - 파인더         | 42 - 경희 라이온스 |
| 8 - 에버랜드    | 33 - 캐류          | 43 - 코즈      |
| 9 - 네비게이토   | 34 - 대학생 기후행동    |              |
| 10 - UCM    | 35 - 청춘별곡        |              |
| 11 - HEXA   |                  |              |
| 12 - 경희극회   |                  |              |
| 13 - 붓다말마   |                  |              |
| 14 - 프라스타일  |                  |              |
| 15 - 래빈     |                  |              |
| 16 - 타로부스   |                  |              |
| 17 - 메이키    |                  |              |
| 18 - 쿠마     |                  |              |
| 19 - 킨하이브리드 |                  |              |
| 20 - 쿠키     |                  |              |
| 21 - ROTC   |                  |              |
| 22 - PARLE  |                  |              |
| 23 - 경희문화회  |                  |              |
| 24 - KBF    |                  |              |
| 25 - 컬스라    |                  |              |



# 문BTI

나와 닮은 문학인은?  
"TEST"



활동사진

(3매 이상)

나는 소설 속 명대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 도전하고 상품 받아주세요 !

ex.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답: 나쓰메 소세키!

**SPEED**  
문학  
**QUIZ**  
**GAME**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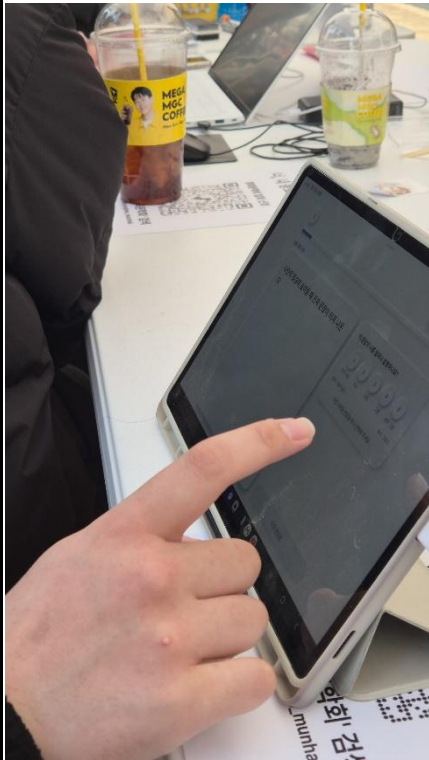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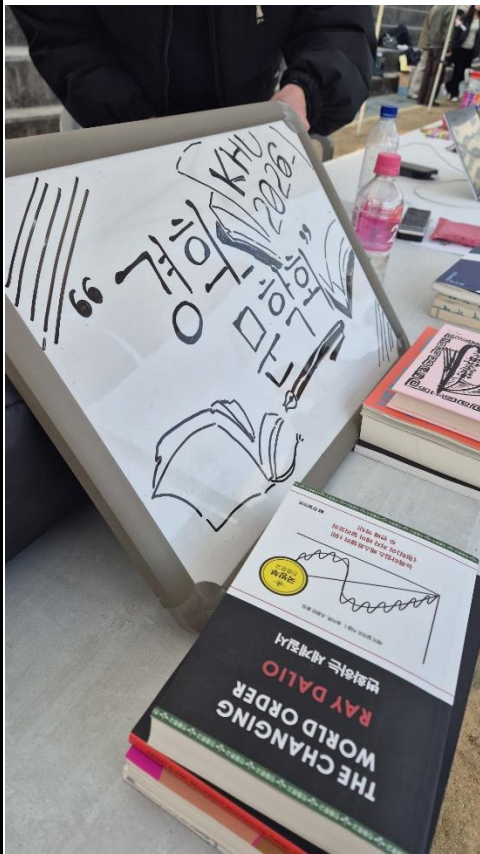
## 경희문학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문학동아리









당신의 문장 결

ISFP



백석

감각으로 빚어낸 서정의 화가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사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문학 프로필

- 백석의 문장 결과 가장 가까운 흐름입니다.
- 감각으로 빚어낸 서정의 화가
- 첫 페이지 추천: 《사슴》 ·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독백형 화자

장면 중심 묘사

정서적 공명

즉흥적 전개

해석 노트 보기

“ 달은 문장의 결

“가난한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쪽쪽 눈이 나린다.”

- 백석



16장 / 24장 16 응답

문장 취향 탐색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도 마음이 이해된다면 아름답다.

이 문장이 나를 얼마나 설명하나요?

1

2

3

4

5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림

매우 그림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문장 위함 탐색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도 마음이 이해된다면 아름답다.

이 문장이 나를 얼마나 설명하나요?

1 2 3 4 5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 '문학 스피드 퀴즈'

Presented by  
조현제

- 정답을 알면 빠르게 답변
- 제한시간 내 10문제 이상 정답 시 상품 증정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 경희문학회 개강총회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3.12.18:00~24:00	비고	2026-1 경희문학회 개강총회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멀티미디어관 210호, 칠성포차 (1차), 88포장마차 (2차)</p> <p><b>활동내용</b> : 2026년 3월 12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210호에서 26-1학기 경희문학회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개강총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약 30명의 신입 및 기존 부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리의 설립 취지와 '문학통신'에서 '경희문학회'로의 개칭 및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 학기 동안 운영될 상시합평, 독서반, 문학 스터디(시·소설반), 그리고 여름방학 중 제작 확정된 정기 문집 발간 등 4대 정기 활동에 대한 세부 운영 방침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빗꽃놀이, 문학기행, 문학인의 밤(MT), 타 대학 문학회와의 교류회 등 부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다채로운 비정기 활동 계획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재 가등락 상태인 본회가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증빙 요건과 익년 4월 15일까지 예정된 서류 제출 일정 등을 공유하며 동아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부원들과 함께 확인하였다. 공식 행사 종료 후에는 영통 중앙상가 인근으로 이동하여 '칠성포차'(1차)와 '88포장마차'(2차)에서 차례로 회식을 진행하며,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이 문학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자유롭게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p>		

**소감** : 학기 초 바쁜 일정 속에서도 30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경희문학회의 새로운 시작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쌓아온 활동 데이터와 '가등락 동아리'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화된 활동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신입 부원들에게 본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강의실에서 진행된 정적인 총회와 영통 상가에서 이어진 역동적인 회식 과정을 통해, 부원들이 동아리에 대한 소속감을 조기에 형성하고 향후 예정된 고강도 창작 및 비평 활동에 참여할 심리적 동력을 얻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동아리 승격이라는 목표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모든 부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가치임을 공유한 만큼, 이번 학기 활동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유일한 문학 공동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기타** : 개강총회 현장 사진, 오리엔테이션 발표 자료(PPT)를 활동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 또한 회식 장소인 칠성포차와 88포장마차에서의 단체 사진 및 결제 영수증을 취합하여 동아리 회비 집행 및 활동 내역의 투명성을 기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 시·소설 창작반 오리엔테이션 및 로그라인 워크숍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3.18. 19:00~20:30	비고	2026-1 소설반, 시반 OT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예술디자인대학 107호, 싸움의고수</p> <p><b>활동내용</b> : 2026년 3월 17일 19시부터 20시까지 예술디자인대학 107호에서 본회 소속 시반과 소설반의 합동 오리엔테이션 및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1차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션은 소설반장 조현재와 시반장 오대한의 주도하에, 한 학기 동안 이어질 전문 창작 커리큘럼의 상세 일정을 공유하고 부원들의 집필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반부에는 주 1회 정기 모임을 통한 상호 피드백 및 합평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후반부에는 본격적인 창작의 기초가 되는 '로그라인(Logline) 작성법' 특강을 진행하였다. 소설반에서는 주인공의 목표, 갈등, 그리고 긴박한 상황(Stakes)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서사 구조 설계법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시반의 경우 이를 변주하여 시적 찰나의 순간과 핵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시적 로그라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각 장르에 적합한 실습을 유도하였다. 부원들은 배부된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자 구상 중인 작품의 원형을 설계하고, 이를 동료들과 공유하며 작품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p> <p><b>소감</b> : 개강 초기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본격적인 문예창작 공동체로서의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원들에게 실질적인 창작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p>		

시간이었다. 특히 창작자들이 흔히 겪는 '백지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그라인이라는 명확한 구조적 틀을 제시한 결과, 부원들이 막연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서사와 이미지로 치환해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본회의 창작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반과 시반이 합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서로 다른 장르의 표현 기법이 주는 신선한 자극을 교환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발행될 정기 문집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또한, 강의실을 가득 메운 부원들의 진지한 태도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경희문학회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전문 문학 스터디 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실감하였고, 이러한 내실 있는 활동들이 중앙동아리 승격 이후에도 본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뿌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타** : 각 창작반의 세부 운영 지침이 담긴 오리엔테이션 PPT 자료와 부원들에게 배부된 '로그라인 작성 가이드북'을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 활동 중 부원들이 작성한 개별 로그라인 실습 결과물과 예술디자인대학 107호에서의 세미나 현장 사진을 활동 증빙 자료로 첨부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시, 소설 통합반

14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조현재님이 한재민 경문님, 이정훈 경문님, 한수현님, 최수연 경문 (\*)님, 채원님, 이규동(비둘기덮밥)님, 노재현 경문님, 이세상 경문님, 원은찬 경문님을 초대했습니다.

조현재님이 방장이 되어 팀채팅을 시작했어요!

조현재님이 오대한 건축22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대한 건축22님이 부방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반 반장을 맡은 건축학과 22학번 조현재라고 합니다. 한 학기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오후 10:28

수정됨



예정한대로 이번주 6시에 한시간정도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상시모집 특성상 중도에 인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첫 모임 장소와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10:31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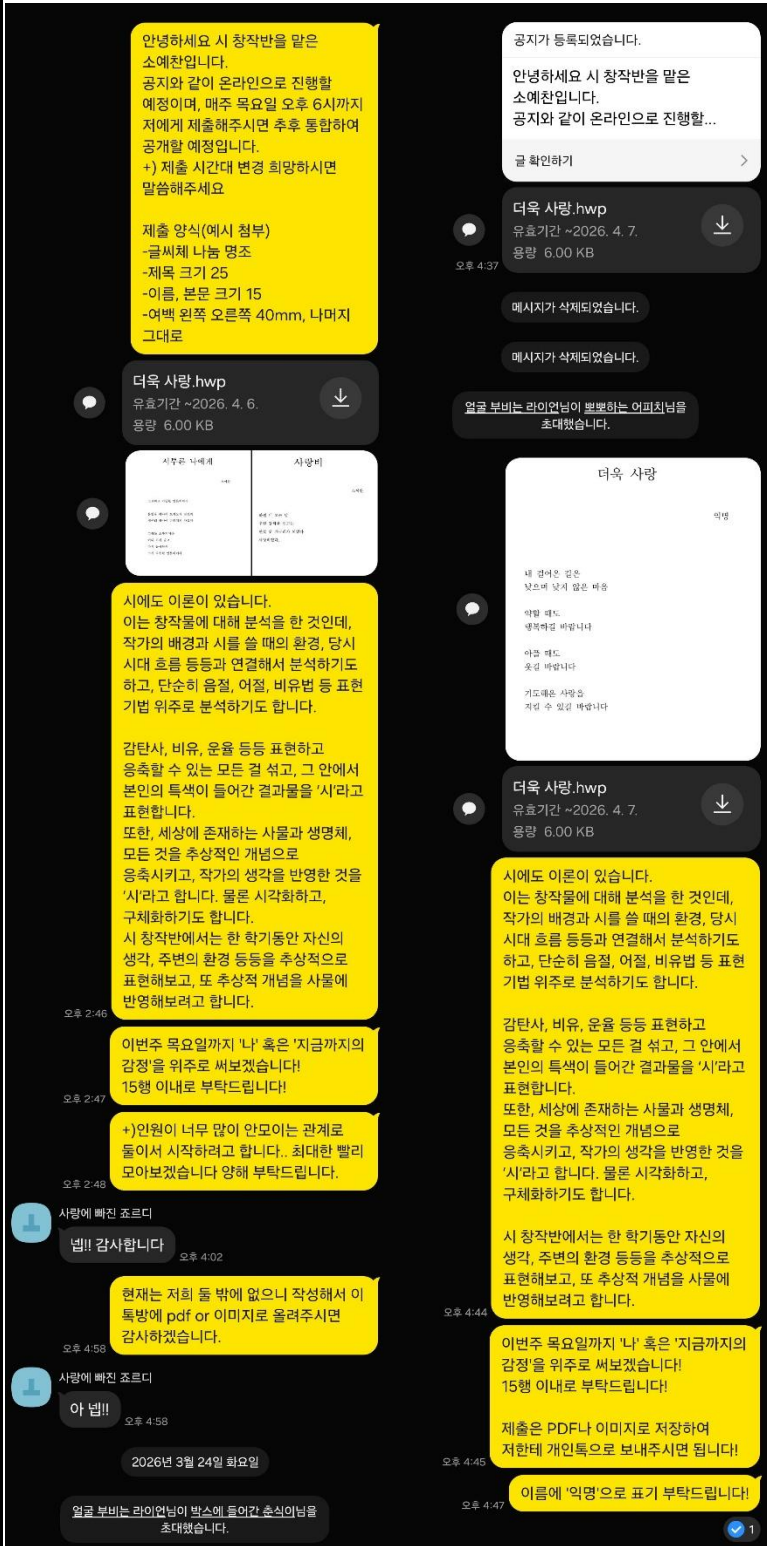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학기 온라인 시(詩) 창작 분과 개설 및 운영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3.24~	비고	2026-1 경희문학회 온라인 시반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온라인 (카카오톡 팀채팅)</p> <p><b>활동내용</b> : 2026년 3월 24일,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원들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상시적인 집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시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온라인 시 분과 임원인 소예찬 부원을 중심으로 현재 총 4명의 정예 인원이 참여 중이며,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한 심도 있는 문학 스터디 체계를 구축하였다. 운영 프로세스는 매주 수요일을 정기 원고 수합일로 지정하여, 부원들이 한 주간 집필한 신작 시를 전용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합된 모든 작품에 대해서는 컴퓨터공학과 23학번 소예찬 반장이 각 작품의 시적 허용, 비유의 적절성, 주제 의식 등을 분석한 개별 합평(피드백)을 진행하여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간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부원 간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서 선발된 작품은 경희문학회 전체 인원이 소통하는 메인 단체 대화방(약 140여 명 규모)에 공유하여 전 회원이 양질의 문학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p> <p><b>소감</b> : 온라인 플랫폼의 기동성을 적극 활용하여 부원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적 사유를 멈추지 않고 기록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창작실'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소수</p>		

정예로 운영되는 온라인 시반의 특성상, 반장과 부원 간의 밀도 높은 소통이 가능해져 개개인의 시적 스타일을 더욱 섬세하게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투표를 통해 엄선된 작품을 전체 독방에 공개하는 방식은 창작 부원에게는 공식적인 발표의 장을 제공하여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일반 회원들에게는 문학적 자극을 전달하여 동아리 전체의 창작 의욕을 상향 평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분과 활동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동아리 승격 이후에도 다양한 회원의 라이프스타일을 포용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의 초석이 될 것이며, 나아가 정기 문집 발행을 위한 양질의 원고를 상시 확보하는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타** : 온라인 시반 전용 단체 대화방의 활동 내역 및 매주 수합된 창작 시 리스트, 소예찬 반장의 합평 기록을 증빙 자료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간 우수작 선정 투표 결과 및 전체 독방 공유 내역을 아카이빙하여, 추후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 시 본회의 자생적 활동력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활동사진  
(3매 이상)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금일 6시까지 보내주시면 종합하여 공지 후 투표할 예정입니다.

1. 시 안에 자신의 감정 및 자신에 대한 생각이 꼭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추후 다수의 표를 받은 시의 작가님 한분만 시를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3. 해석한 후에도 질문과 합평 등은 따로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작가님이 원하시는 경우 질문 및 합평 받겠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4. 다음주까지의 주제는 이번주 내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주 1회 창작과는 별개로 마음껏 시를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후 1:23

제 개인사정때문에 금일 오후 10시까지 제출로 변경하겠습니다. 천천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35

시	투표
<p>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른다 이제는 나에게서 나에게로</p>	1
<p>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른다 이제는 나에게서 나에게로</p>	1
<p>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른다 이제는 나에게서 나에게로</p>	1
<p>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른다 이제는 나에게서 나에게로</p>	1

오후 10:53

지금까지의 혹은 지금의 작가 마음이 담겨있는 시들입니다.

가장 궁금한 작가가 누구인지 투표해주세요

**Q. 절벽**

둘

오래 되어서

나에게서 나에게로

투표하러 가기 >

오후 10:54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Q. 03.26 감정에 대한 시**

1위

투표결과 확인하기 >

오후 11:04

사랑에 빠진 조르디에게 답장 다시 작가입니다. 우리는 매번 계절의 순...

배경을 알고 보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버겁게 느껴지기도, 긍정적인 시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다시'를 쓰신 건지 실례가 안된다면 여쭙봐도 될까요? 무엇이 반복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건지 궁금합니다

오후 9:57



사랑에 빠진 조르디

얼굴 부비는 라이언에게 답장 배경을 알고 보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

새 계절을 맞이하는 저의 태도가 너무 맛있어서 어서 일어나서 이 계절을 누리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오후 10:27

2026년 4월 4일 토요일



뽀뽀하는 어피치

개나리 찾기를 지은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라고 하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끔 자기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못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상황이 힘들거나 이유는 다양하겠죠 화자는 청자에게 그런 마음을 좀 열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니까요!

오후 1:48



뽀뽀하는 어피치

사랑에 빠진 조르디에게 답장 새 계절을 맞이하는 저의 태도가 너무 맞...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더 결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후 1:50

지금까지 저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 왔고, 자신의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껏 표현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넣어 자유롭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 하늘, 바람, 별, 시  
주제 : 자유  
행 제한 : X  
기한 : 목요일 오후 10시까지

오후 10:42

2026년 4월 6일 월요일

남들 저희가 써온 시들 혹시 문학회 단톡방에 올려도 될까요? 추후에

오후 11:04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학기 소설 분과 2차 정기 합평 및 초안 설정 워크숍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3.25.18:00~19:30	비고	소설반 2차 합평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리드엑스 카페</p> <p>활동내용 : 2026년 3월 25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리드엑스 카페'에서 소설반 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학차 정기 합평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지난 오리엔테이션에서 수립한 '로그라인'을 실질적인 서사로 발전시키는 '초안 설정' 단계로 진행되었다. 부원들은 각자 구상한 작품의 세계관과 인물 설정을 담은 초고를 지참하여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타워』, 『고향』과 같은 미스터리·호러 장르부터 건축적 사유를 담은 『더 나은 공간』, 인류의 정체를 나무에 비유한 『로큰롤』,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 『더 로켓맨』 등 매우 폭넓은 장르적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정상 지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규 인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별도의 로그라인 작성 세션을 병행하여, 『자유 진리』, 『마법의 샤프』 등의 기획안을 도출함으로써 모든 부원이 본격적인 집필 궤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p> <p>소감 : 한 문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로그라인이 구체적인 문장과 서사를 갖춘 '초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부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집필에 대한 열의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장르와 소재를 다루는 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시각에서 피드백을 교환함으로써, 작가 개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서사의 빈틈을 보완하고 작품의 객관적인</p>		

완성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창작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기성 장르의 문법을 차용하면서도 본인만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투영한 수준 높은 원고들이 다수 제출되어, 향후 발행될 정기 문집의 내용적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합평 문화는 자칫 고립되기 쉬운 창작 과정에 강력한 연대감과 건강한 자극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체계적인 문학 스터디 조직으로서 중앙동아리 승격에 걸맞은 학구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타** : 리드엑스 카페에서의 합평 현장 사진과 부원들이 제출한 개별 소설 초안(더 나은 공간, 로큰롤 등) 및 당일 작성된 신규 로그라인 결과물들을 활동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b>활동명</b>	26-1학기 제4회 문학기행: 연세대학교 윤동주기념관 탐방 및 대학 교류		
<b>동아리 분과</b>	취미교양분과	<b>동아리명</b>	경희문학회
<b>활동시간</b>	2026.03.26.16:30~21:00	<b>비고</b>	2026-1 4회차 문학기행
<b>활동목적</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b>활동내용 및 소감</b>	<p><b>장소</b>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윤동주기념관(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핀슨홀)</p> <p><b>활동내용</b> :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경희문학회는 26-1학기 네 번째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위치한 '핀슨홀 윤동주기념관'을 방문하는 문학기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행은 가등록 동아리로서 대외적 연대를 강화하고 부원들에게 인문학적 창작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발된 총 10명의 정예 부원이 참여하였다. 부원들은 당일 오후 16시 30분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편의점에 집결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 1시간 30분간 이동하였으며, 신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부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오후 19시부터 진행된 본격적인 탐방에서는 연세대학교 문학동아리 '연세문학회'의 조현진 회장이 직접 도슨트를 맡아 핀슨홀의 역사적 배경과 윤동주 시인의 학창 시절 자취, 그리고 전시된 육필 원고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였다. 부원들은 시인이 고뇌했던 공간의 원형이 보존된 현장에서 그의 시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심층 관람을 진행하였다.</p> <p><b>소감</b> : 한국 문학사의 거성인 윤동주 시인의 숨결이 서린 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탐방은 텍스트로만 접하던 시인의 세계관을 현실의 공간감으로 치환하여 체감할 수 있었던 매우</p>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타 대학 문학 공동체인 '연세문학회'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각 대학 동아리의 운영 현황과 창작 방법론을 공유한 점은 경희문학회의 외연을 확장하는 소중한 성과였다. 조현진 회장의 깊이 있는 해설은 시인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과 예술적 의지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부원들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새로운 문학적 화두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10명의 인원이 밀도 있게 소통하며 현장에서 시의 상징성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은 경희문학회가 추구하는 학구적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번 기행에서 얻은 영감은 향후 발행될 정기 문집의 수록작들이 한층 더 깊은 사유를 담아내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타 :** 이번 문학기행은 참여비 없이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3일 월요일 22시까지 실시된 수요조사를 통해 안전한 인솔이 가능한 인원으로 확정 운영되었다. 윤동주기념관(핀슨홀) 전경 및 내부 관람 사진, 연세문학회 조현진 회장과의 교류 현장 사진을 활동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기록 및 이동 경로를 아카이빙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2026. 3. 23. (월)  
 운동주 기념관에서  
 -야포아-  
 2026. 3. 24. (화)  
 내편 나편라 운동주 기념관이 다터가다

2026. 03. 24. (화)  
 관악기 기념관 같이 왔는데!  
 -타원-  
 2026년 3월 26일 (목)  
 운동주 기념관 야간 개장예  
 시민에서 고모를 감방라던 형을 함께 바라보며 0

2026. 3. 26 (목)  
 공찬은 맞대방~ (정승현, 홍신은 @kong-cha 1 건락~)

친생민 박찬우 김근형 조현우 장현수 허주리  
 경희문학회 다녀감 서미민  
 2026. 3. 26 (목) 이현서 박재현  
 연대방 김병진 연대방 (정승현, 홍신은)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학기 경희문학회 상반기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임원진 회의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3.29.16:00~21:00	비고	2026-1 상반기 임원진 회의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리드엑스 카페, 포명천천 중식당, 레드버튼 보드게임카페</p> <p><b>활동내용</b> : 2026년 3월 29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리드엑스(LeadX) 카페'에서 본회 임원진 9명이 집결하여 26-1학기 주요 사업의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한 상반기 정기 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등락 기간의 활동 증빙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독서반, 시반, 소설반 등 분과별 운영 고도화 방안과 더불어 MT 및 문학기행의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독서 스터디의 경우, 단순히 정해진 책을 읽는 방식을 넘어 부원들이 각자 선정한 도서를 소개하며 문학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운영 개요를 확정하였다. 또한, 시반과 소설반의 합평 일정을 조율하고 5월 중 개최될 '문학인의 밤(MT)'과 향후 진행될 대외 교류형 문학기행의 후보지 및 예산안을 검토하였다. 회의 종료 후에는 영통 중앙상가 내 중식당 '포명천천'에서 회식을 진행하였으며, 이어 '레드버튼 보드게임 카페'로 이동하여 임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친목 도모 세션을 가졌다.</p> <p><b>소감</b> : 이번 임원 회의는 동아리의 양적 성장에 발맞춰 운영의 질적 내실을 다지고, 중앙동아리 승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p>		

이정표가 되었다. 각 분과 임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원들에게 제공할 문학적 경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칫 놓칠 수 있는 행정적 증빙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었다. 특히 '포명천천'과 '레드버튼'으로 이어진 친목 시간을 통해 임원진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팀워크는 학기 말까지 이어질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단순한 운영진의 모임을 넘어 경희문학회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 진지한 시간이었으며, 이번에 수립된 계획들이 현장에서 부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타** : 리드엑스 카페에서의 회의 현장 사진 및 분과별 세부 운영 기획안(독서 스터디 개요 등)을 회의록과 함께 보존하였다. 또한 회식 장소인 포명천천과 레드버튼 보드게임 카페 이용 단체 사진을 확보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포명전선

명 (동5) 영수증 NO: 0062-1  
 사업자번호 : 4660100337  
 영점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8 2층  
 영점명 : 김치숙  
 연락처 : 031-204-6445  
 일자 : 2025-03-29 18:33:09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자판	10,000	1	10,000
피자	7,000	1	7,000
김치숙	11,900	1	11,900
김치숙	10,000	1	10,000
김치숙	10,000	1	10,000
김치숙 (1)	9,000	1	9,000
김치숙	11,000	1	11,000
김치숙 (소)	12,900	1	12,900
김치숙 (돼지고기용)	25,900	1	25,900
소계:			112,800

점원 외에 표시가 되어있는 품목은  
 부가세 면세 품목입니다.  
 부가세 과세 품목가액: 102,546  
 부가세 면세 품목가액: 10,254  
 부가세 면세 품목가액: 0

청구금액: 112,800  
 받음금액: 112,800  
 거스름돈: 0

**신용카드: 112,800**

카드번호 : 9490-94\*\*-\*\*\*\*-\*\*\*\*  
 유효기간 : \*\*/\*\*  
 카드명 : KB체크카드  
 가맹점NO : 00074161678  
 가맹점사명 : KB카드  
 결제금액 : 112,800  
 결제일 : 일시불

정신건강을 다하겠습니다.  
 결제취소시 반드시 영수증에 자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자 : 매니저  
 고객용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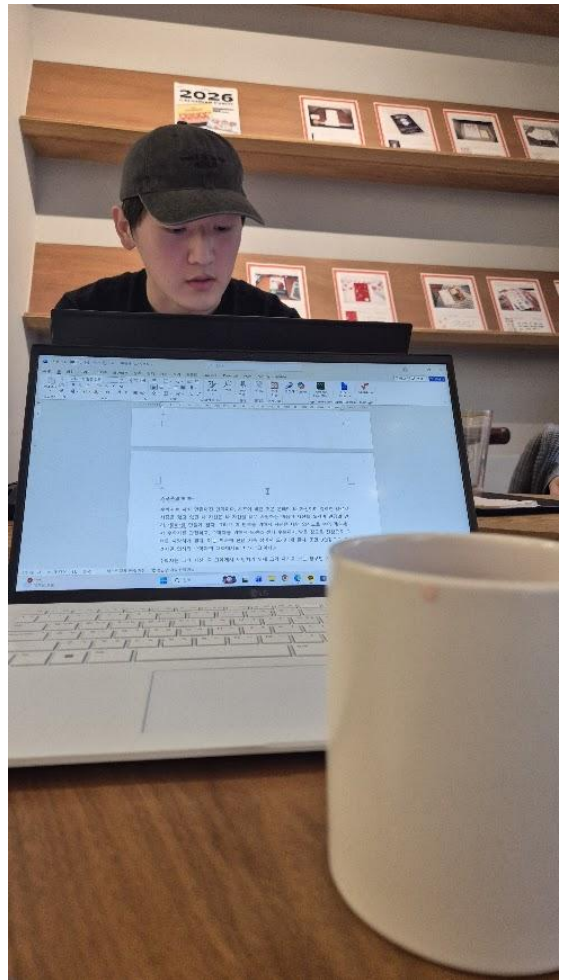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학기 소설 분과 3차 정기 합평 및 원고 수정 워크숍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4.01.18:00~20:00	비고	2026-1 소설반 3차 합평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리드엑스 카페</p> <p><b>활동내용</b> : 2026년 4월 1일, 26-1학기 소설 분과의 세 번째 정기 합평회를 개최하여 지난 2차 모임에서 도출된 초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비평과 수정 방향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션은 단순한 감상 공유를 넘어, 장르적 문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서사의 논리적 빈틈을 보완하는 '리라이팅(Rewriting)' 과정에 집중하였다. 주요 합평 작품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겪는 기괴한 시간 정체 현상을 다룬 『낙화』(조현재), 막대한 보상과 치명적인 위협 사이의 심리적 대조를 치밀하게 계산한 『살인달팽이』, 그리고 정신병원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편집증적 공포를 극대화한 『마법의 샤프(2차 수정)』 등이 다뤄졌다 살인달팽이 1주차.pdf, 마법의샤프2차수정.docx]. 각 작가는 지난 합평회에서 지적받았던 인물의 동기 부족이나 배경 설명의 과잉 등을 대폭 수정하여 원고를 제출하였으며, 부원들은 수정본을 대조하며 서사의 긴장감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낙화』의 경우 월남 파병 시절의 트라우마와 고향의 풍경을 연결 짓는 묘사 방식에 대해, 『살인달팽이』는 공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수치적 디테일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p> <p><b>소감</b> : 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정교한 과정인 '수정' 단계에 임하며, 경희문학회</p>		

부원들이 보여준 창작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인내심은 본회가 단순한 취미 모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특히 동료들의 냉철한 비평을 수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객관화하고, 2차 수정본에서 문장의 밀도와 서사의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린 작가들의 발전상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장르 소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자극적인 설정의 나열에서 벗어나, 인물의 내면 심리와 사회적 함의를 담아내려는 시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은 이번 학기 발행될 정기 문집의 질적 수준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서로의 작품을 '나의 일'처럼 고민하며 더 나은 문장을 제안하는 유기적인 비평 문화는 부원 개개인의 문학적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실 있는 정기 합평 시스템은 중앙동아리 승격 이후에도 본회가 경희대학교의 창작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타** : 각 작품의 1차 초안 대비 수정 사항이 명시된 비평지 및 2차·3차 수정 원고를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학기 소설 분과 4차 정기 모임: 소설 합평 및 '글월문예' 손편지 공모전 참여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4.08.18:00~20:00	비고	2026-1 소설반 4차 합평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 리드엑스 카페</p> <p><b>활동내용</b> : 2026년 4월 8일, 26-1학기 소설 분과의 네 번째 정기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차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지속된 고강도 창작 활동의 피로도를 낮추는 한편, 부원들의 정서적 감수성을 환기하기 위해 '대학내일'에서 주관하는 제1회 손편지 공모전 **&lt;글월문예&gt;**에 단체로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로 기획되었다. 활동 초반에는 지난 세션에 이어 각자의 소설 원고 수정본에 대한 핵심 위주의 짧은 합평을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아날로그 기록 프로젝트' 세션에서는 부원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편지지를 배부하고, '멀리 떠난 그 친구에게'라는 공모 주제에 맞춰 각자의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빠르게 휘발되는 디지털 메시지 시대에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순우리말로 편지를 뜻하는 '글월'의 의미를 되새기며 원고지 위에 마음을 꺾꺾 눌러 담는 집필 활동을 전개하였다.</p> <p><b>소감</b> : 냉철한 비평과 치밀한 서사 구조 설계에 몰두하던 부원들이 '편지'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진솔한 문학 양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스포츠 콘텐츠와 자극적인 텍스트가 주류인 현대 사회에서, 손으로 직접 글자를 써 내려가는 아날로그적 행위는 창작자로서 '느림의 미학'과 '진실성'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p>		

'멀리 떠난 친구'라는 주제를 통해 부원들은 각자의 그리움과 성찰을 문장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서적 환기는 향후 소설 창작 시 인물의 내밀한 심리를 더욱 깊이 있게 묘사하는 데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번 공모전 참여는 외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본회의 활동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부원들에게는 창작의 즐거움을 재발견하고 문학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기타** : 대학내일 <글월문예> 공모전 공식 포스터 및 안내 자료, 부원들에게 배부된 편지지와 진지하게 집필에 임하는 현장 사진을 활동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

활동사진  
(3매 이상)



## 글월문예.

-

**접수기간**  
2026.3.18~2026.4.19

**분량**  
자유

**보내실 곳**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빌딩 4층  
대학내일 매거진 앞

**상금**  
대상 100만 원(1명)  
최우수상 50만 원(1명)  
우수상 30만 원(1명)  
입상 네이버페이 포인트 2만 원(10명)

**문의**  
univ20d@univ.me

**주제**  
멀리 떠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제출방법**  
우편 발송

**응모 자격**  
대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 졸업생 및 대학원생은 참여 불가

**주의사항**

- 당선작은 대학내일 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 공개됩니다.
- 모든 공모작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당선자에게는 대학생 증명 가능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 시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학내일**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6-1학기 중간고사 이전 독서반(A~I 9개 반) 전반 활동		
동아리 분과	취미교양분과	동아리명	경희문학회
활동시간	2026.03.16. ~2026.04.07.	비고	2026-1 독서반 전반 활동
활동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는 회원의 창작, 비평, 독서를 지원하고 문학적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2. 개인 창작물을 공유하고 감상평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 (세부목적)</li> <li>3. 부원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문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세부목적)</li> </ol>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국제캠퍼스 근처 카페, 캠퍼스 내 강의실,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등</p> <p>활동내용 :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문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원들이 일상 속에서 가볍게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독서반'의 상반기 정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이번 독서반 활동에는 동아리 전체 인원의 상당수인 총 62명의 부원이 참여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과 밀도 높은 소통을 위해 A반부터 I반까지 총 9개의 소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였다. 각 반은 본회 임원진들이 반장을 맡아 책임 운영하였으며, '리드엑스 카페', '유멜로우', '중앙도서관 혜음' 등 교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반별 특색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하였다.</p> <p>전반적으로는 <b>A반(반장 김근형)</b>은 기획부 독서부장으로서 전체 독서반 활동 체계를 기획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별로 모임 주기와 운영 커리큘럼을 차별화하여 부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예를 들어, <b>E반(반장 김유진)</b>은 부원들이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한 뒤 익명 투표를 통해 선정작(『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을 정하는 '교환 독서' 방식을 도입하였고, <b>C반(반장 박윤우)</b>은 SF나 미스터리 등 특정 장르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는 테마형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 <b>B반(반장 이원석)</b>은 시 특화로 각 인원들이 개별 시를 선정해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b>G반(반</b></p>		

**장 최수환**)은 책을 1권 선정해 읽는 정석적인 방식의 독서 모임을 진행하였다. 또한 **H반과 I반 (반장 조현재)**은 『모순』, 『어린왕자』, 『호밀밭의 파수꾼』 등 고전과 현대 문학을 넘나드는 자유 도서 소개를 통해 서로의 문학적 시야를 공유하였다. 특히 **D반(반장 윤성민)**은 인근 식당에서의 회식이나 야외 모임을 병행하여 타 분과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학습 모임을 넘어 부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네트워킹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소감** : 이번 상반기 독서반 활동은 "문학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62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각자의 삶 속에서 문학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9개의 반이 각기 다른 색깔로 운영됨으로써 부원들은 본인의 성향에 맞는 최적의 독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로 이어졌다. 특히 반장(임원진)들의 헌신적인 운영 하에 진행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에서, 같은 문장을 읽더라도 각자의 전공과 배경지식에 따라 수십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공유하는 독서'의 가치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분과별 소모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동아리 승격 이후에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는 경희문학회만의 독보적인 운영 모델이 될 것이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기존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을 재편성함으로써, 상반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인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반별 교차 교류를 통해 더욱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희문학회가 단순히 책을 읽는 모임을 넘어, 다양한 생각이 교차하고 새로운 창작 영감이 샘솟는 역동적인 문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기타** : A~I반 각 반별 활동 일지 및 참여 부원 명단(총 62명), 모임 장소별 현장 사진, 그리고 각 반별 활동 보고서를 활동 증빙 자료로 완비하였다.

##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A반 반장 : 김근형

활동 일시	2026.03.16. / 16:30~18:30
활동 위치	리드엑스 카페
참여자 (총 8명)	김근형(반장), 김경준, 김현준, 윤성민, 이희태, 정아인, 최수빈, 한수연
활동 내용	<p><b>첫 모임 OT</b> : A반 독서 모임의 특징, 목적, 활동 상세 내용 안내했다.</p> <p><b>자기소개</b> : 학과/학번/이름, 취미, 독서 모임 신청 이유 등 간단한 자기 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p> <p><b>자유 도서 소개</b> : 자유롭게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개 후엔 질문 및 소개를 듣고 난 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했다.</p> <p>김근형 : &lt;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gt; - 김보통          김현준 : &lt;The black book 검은 감정&gt; - 최민정(설레다)          이희태 : &lt;신곡 지옥편&gt; - 단테          정아인 : &lt;헬프&gt; - 캐스린스토킷          한수연 : &lt;빨간구두당&gt; - 구병모</p> <p>*김경준/윤성민/최수빈 3인은 시간 관계상 책 소개 X          책 소개 이후, 질문 및 각자의 생각 말하기만 참여</p> <p><b>소감</b> : 서로가 가져온 책을 공유하며 문학 자체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같은 책을 읽었던 부원끼리의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며, 문학을 대하는 시각적 다양성을 직접 체험했다.</p> <p>이번 책에서는 차별, 편견, 다름에 대한 이해와 불안 등의 주제가 겹쳤다. 때문에 소개 이후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공유하는 시간 동안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과 편견에는 어떠한 태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생각의 면적을 넓히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p> <p><b>기타 활동</b> : 독서 모임 종료 후, 남은 부원끼리 인근 식당(겐코)에서 부원 간의 친목을 다지며,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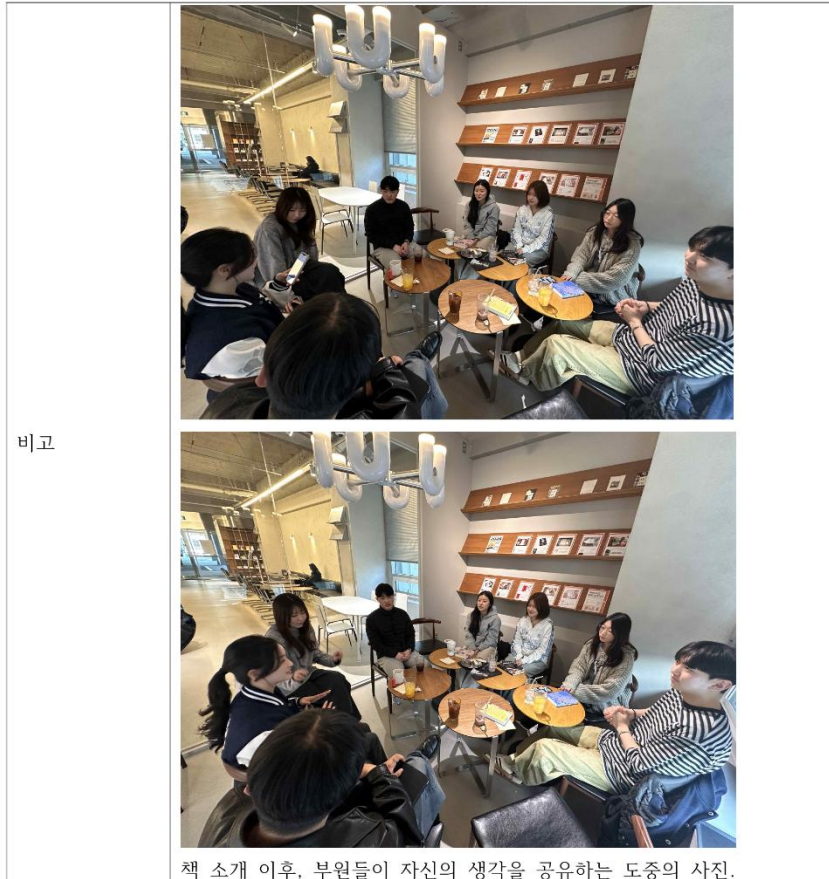
비고

부원 간 자기 소개 중 활동 사진.

##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A반 반장 : 김근형

활동 일시	2026.03.16. / 16:30~18:30
활동 위치	리드엑스 카페
참여자 (총 9명)	김근형(반장), 김경준, 김현준, 윤성민, 이민아, 이희태, 정아인, 최수빈, 한수연
활동 내용	<p><b>자기소개</b> : 학과/학번/이름, 등 간단한 자기 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p> <p><b>자유 도서 소개</b> : 자유롭게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개 후엔 질문 및 소개를 듣고 난 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했다.</p> <p>김경준 : &lt;빛과 실&gt; - 한강 윤성민 : &lt;환상통&gt; - 이희주 최수빈 : &lt;오렌지와 빵갈&gt; - 청예</p> <p>* 독서 모임의 인원이 많아 한 주에 3~4명씩 책을 소개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함. 마지막 주에는 반장 혼자 책을 소개하고, 다른 콘텐츠 "추상적 개념의 재정의"를 할 예정</p> <p><b>소감</b> : 이번 시간에는 책을 소개하는 부원들이 책에 관해 자신이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다른 부원들에게 설명해주면서, 이 과정에서 생긴 의문 점들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많았다.</p> <p>인생을 살면서 꼭 던져야 할 질문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자아란 무엇인가? 등을 통해 부원들이 보다 깊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고,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p> <p><b>기타 활동</b> : 없음.</p>



비고

책 소개 이후, 부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도중의 사진.


활동 일시	2026.03.30. / 16:30~18:45
활동 위치	리드엑스 카페
참여자 (총 8명)	김근형(반장), 김경준, 김현준, 박유민, 윤성민, 이민아, 정아인, 한수연
활동 내용	<p><b>자기소개</b> : 학과/학번/이름, 등 간단한 자기 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p> <p><b>자유 도서 소개</b> : 자유롭게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개 후엔 질문 및 소개를 듣고 난 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했다.</p> <p>이민아 : &lt;블루 시스터즈&gt; - 코코 멜러스  정아인 : &lt;기억 전달자&gt; - 로이스 로리  한수연 : &lt;팽이&gt; - 최진영</p> <p><b>소감</b> :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인 강압이 개인의 개성을 목살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토의가 대부분이었다. 과연 우리는 고통을 제거시킨 사회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현재 자신은 개성이 사라진 낙타(은유)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등에 대한 고찰을 해보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이 외에도 가족 (특히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말하며,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p> <p><b>기타 활동</b> : 없음.</p>
비고	



이민아 님의 <기억 전달자>를 소개 중인 사진.


##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B반 반장: 이원석

일시:	2026.03.25.19:30~21:00
위치:	리드엑스
참여자 성명:	이원석, 김지윤, 배주연, 서예린, 하수미, 유지훈 총 6명
활동내용:	<p>활동내용: 자기소개 및 좋아하는 작품 소개, 김남조의 편지, 류시화의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가는 물달개비, 나태주의 앉아서, 사막 5 등의 다양한 시 문학 작품들을 공유하였다.</p> <p>소감: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감상들을 언어화하여 공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다.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을 우리 삶의 문제로 확장해 고민해 보며, 문학이 주는 위로를 넘어 삶을 대하는 스스로의 지향점을 점검해 본 뜻깊은 경험이었다.</p>
활동 내용:	


##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B반 반장: 이원석

일시:	2026.04.08.19:30~21:00
위치:	리드엑스
참여자 성명:	이원석, 배주연, 하수미, 유지훈 총 4명
활동내용:	<p>활동내용: 최근 근황 공유 및 문학 작품 소개. 박준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류시화의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김경미의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바다와 빗소리와 작약을 취급하는지 등의 문학 작품들을 서로 공유하였다.</p> <p>소감: 혼자 읽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문장 사이의 함의를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발견하는 즐거움이 컸다. 집단지성을 통해 작품의 숨은 의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함께 읽고 나누는 행위가 개인의 독서 경험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p>
활동 내용: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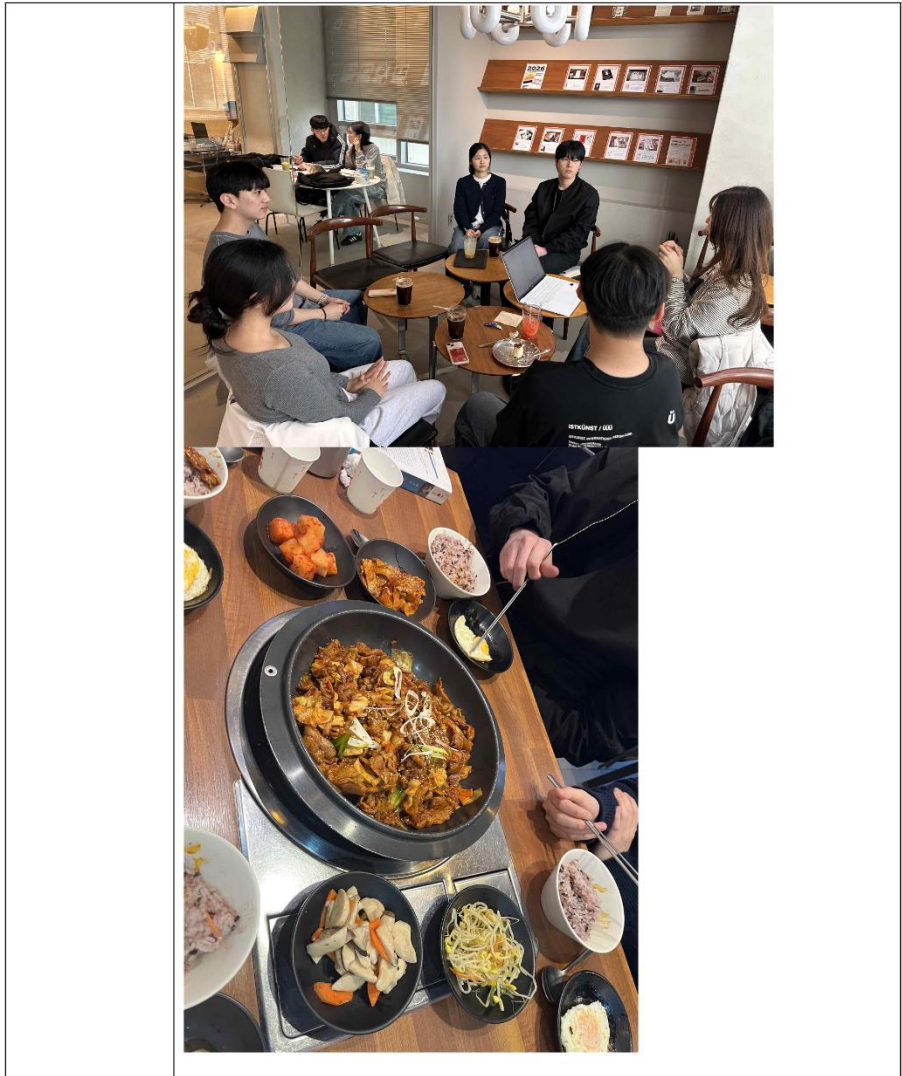
독서 C반 반장: 박윤우

일시:	ex) 2026.03.23~2026.04.06
위치:	스타벅스, 중앙도서관 혜음 및 제2열람실 스터디룸
참여자 성명:	박윤우, 전준휘, 권해미, 안동휘, 김경표, 서시연 총 6명
활동 내용:	<p><b>활동내용:</b> 각 조원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토론하고 싶은 장르를 제시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각 주차마다 제시된 장르중 하나를 정하고, 해당 장르를 가진 책을 읽어보았다. 책을 읽어본 이후에는 읽은 내용을 발표하고, 장르의 특성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현재까지는 SF와 미스터리 장르를 다루었다.</p> <p><b>소감:</b> 같은 장르라도 각자 가져온 책들마다 장르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여 신기했다. 또한, 널리 알려진 책들을 가져오는 것보다 숨은 명작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책에 대한 견식을 넓힐 수 있었다.</p> <p><b>기타:</b> 독서모임은 중앙도서관의 스터디룸에 주로 진행되었다. 방음이 잘 되어있어서 열띤 토론을 해도 밖에서 잘 들리지 않으니 좋았다.</p>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D반 반장: 윤성민

일시:	2026.03.24.16:30~18:00
위치:	리드엑스 카페
참여자 성명:	윤성민(반장), 김경준, 김근형, 김현준, 김휘연, 송진우, 최수빈 총 7명
활동 내용:	<p><b>자기소개</b> : 학과/학번/이름, mbti, 경희문학회에 들어온 이유 등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p> <p><b>자유 책 소개</b> : 부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선정하여 읽어온 도서를 소모임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단순한 도서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발표 후에는 각 도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며 서로의 견해를 나누는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발표자를 향한 일방적인 질의응답을 넘어 참여자 전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공통된 주제를 발제하여, 구성원 각자의 다채로운 관점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었다.</p> <p>윤성민 : &lt;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gt; - 알랭 드 보통 김휘연 : &lt;페스트&gt; - 알베르 까뮈 송진우 : &lt;크눌프&gt; - 헤르만 헤세</p> <p>시간 관계상 모든 참석자의 도서 소개를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미발표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참여도를 높였다.</p> <p><b>소감</b>: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닌 부원들이 한데 모여 다채로운 책을 매개로 소통함으로써, 각자의 문학적 지평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평소 개인의 취향에 맞는 장르만 편독하여 타 분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부원들도, 이번 모임을 통해 자신과 상이한 사고체계와 성향을 가진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며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p> <p><b>또한</b> 특정 도서에서 파생된 주제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두고 각자가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다양한지 체감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시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결이 비슷한 의견도 있었으나 때로는 완전히 상반된 시각도 존재했는데, 이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깊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p> <p><b>기타</b>: 독서 모임 종료 후, 부원끼리 인근 식당에서 부원 간의 친목을 다지며,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p>
	<p><b>활동 사진 첨부:</b></p>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D반 반장: 윤성민**

<b>일시:</b>	2026.03.31.16:30~18:00
<b>위치:</b>	리드엑스 카페
<b>참여자 성명:</b>	윤성민(반장), 김경준, 김근형, 김현준, 김휘연, 송진우, 이유담, 최수빈 총 8명
<b>활동 내용:</b>	<p><b>자기소개</b> : 학과/학번/이름, mbti, 경희문학회에 들어온 이유 등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p> <p><b>자유 책 소개</b> : 지난 모임에 불참했던 신입 부원들을 위해, 기존 부원이 선정한 도서 한 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해당 도서의 핵심 주제인 '행복'을 바탕으로, 특히 '조용한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신념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조용한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교차하며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으며, 나아가 각자가 일상 속에서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확장했다.</p> <p><b>내 세계의 정립</b> : 모임 전날, 각자가 '애정하는 것'을 주제로 대화할 예정임을 사전 공지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부원들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해 왔으며, 모임 당일 이를 자유롭게 나누었다. 부원들이 공유한 '애정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별뇌, 나 자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예:집), 떠다니는 구름, Chopin piano concerto No.1, Frank Ocean의 'blonde' 앨범, 땅거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p> <p><b>소감</b>: 첫 번째 '자유 도서 소개'를 통해,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사람마다 무척 다양하게 뿔어 있음을 실감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요소들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타인의 관점을 들으며, 나 자신의 행복 기준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용한 행복'이라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두고도 각기 다른 해석이 존재함을 확인하며, 스스로 정의하는 조용한 행복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p> <p>두 번째 '내 세계의 정립'에서는 동일한 발제 안에서도 무척 상이한 방향의 생각들이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이는 본인의 내면적 정서를, 어떤 이는 자연의 풍경이나 음악을 끄는 등 대상을 애정하는 이유 또한 다채로웠다. 이 과정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애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는 뜻깊은 다짐을 나누었다.</p> <p><b>기타</b>: 독서 모임 종료 후, 부원끼리 인근 식당에서 부원 간의 친목을 다지며,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p>
	<b>활동 사진 첨부:</b>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D반 반장: 윤성민

일시:	2026.04.7.16:30~17:30
위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노천극장
참여자 성명:	윤성민(반장), 김경준, 김근형, 김현준, 김휘연, 송진우, 심재현, 이유담, 조용빈, 최수빈 총 10명
활동 내용:	<p><b>자기소개</b> : 학과/학번/이름, mbti, 경희문학회에 들어온 이유 등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p> <p><b>벚꽃 축제</b> : 소모임 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벚꽃 축제에 다 함께 참여했다. 평소의 진지한 독서 토론에서 벗어나, 부원 간에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야외에 모여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일상과 사적인 대화를 자유롭게 주고받았다.</p> <p><b>소감</b>: 매번 심도 있는 문학적 담론만 나누던 부원들이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공유하며 한층 더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지한 토론 못지않게 편안하고 유쾌한 소통 역시 모임의 결속력과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p> <p>특히, 처음부터 깊이 있는 주제로 대화하는 것에 다소 부담을 느꼈을 부원들도 이번 야외 활동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하여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소모임 활동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미한 시간이었다.</p> <p><b>기타</b>: 독서 모임 종료 후, 희망하는 부원들과 함께 노천극장에서 열린 초청 공연을 관람했다. 이를 통해 부원 간의 친목을 한층 더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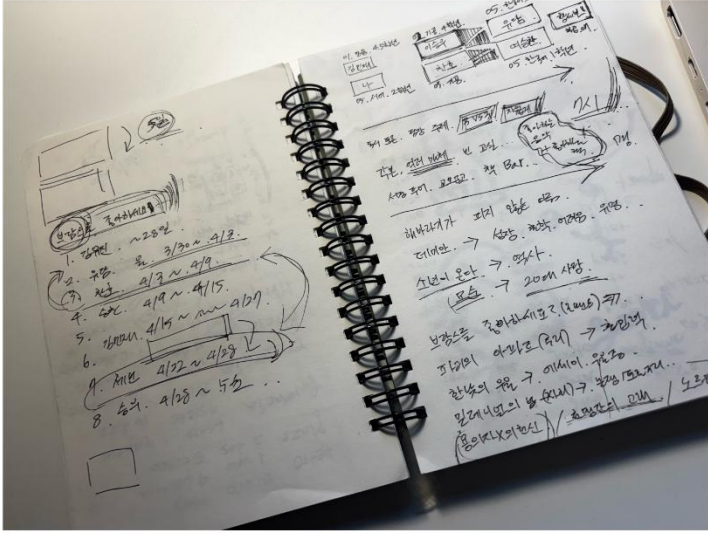
활동 사진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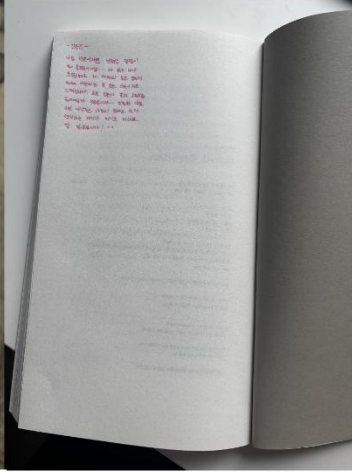




##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E반 반장 김유진

<b>일시:</b>	26.03.25~
<b>위치:</b>	유멜로우 카페
<b>참여자 성명:</b>	김유진, 공찬호, 김민재, 여승찬, 이승우, 이유담, 황세빈 (총 7명)
<b>활동 내용:</b>	<p>활동 내용: 처음 20분 동안은 간단한 자기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하였다. 그 뒤 우리 독서반이 진행할 '교환 독서'에 대한 짧은 안내 후, 각 부원들이 교환 독서에서 읽고 싶은 책 1~3권 정도를 돌아가며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 후 익명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책 교환을 위한 일정을 조율한 뒤, 간단한 사담 시간을 가지고 모임을 마무리하였다.</p> <p>소감: 대부분이 교환 독서라는 진행 방식에 흥미를 가지고 참석한 부원들이었기에 모임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순탄하게 흘러갔다.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특히 유의미했는데, 다들 이 교환 독서로 인해 무엇을 읽고자 하는지, 타인과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돋보였다. 이번은 대개 첫 만남인 모임이었지만 교환 독서가 끝나고 나면 각자 품고 있는 세계와 사고에 공통 분모가 많이 생겨날 것 같아 기대가 된다.</p>
<b>활동 내용:</b>	 <p>The image shows a handwritten page from a spiral notebook. On the left side, there is a list of books and dates, numbered 1 through 8.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flowchart or diagram with boxes and arrows, detailing the 'book exchange' process. The text is written in Korean and includes names like '김유진', '공찬호', etc., and dates like '3/20 ~ 3/22', '3/23 ~ 3/29', etc.</p>



김유진  
3월 26일 오후 8:24 · 공지 · 5명 읽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순서]

유진 ▶ 천호 ▶ 유담 ▶ 승찬 ▶ 민재 ▶ 세빈 ▶ 승우


[읽기구]

- 이왕이면 사용되는 펜 색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이미 검은 색이 2번 파란색이 1번 쓰였으면 파란색으로 쓰는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집에 압록달록 유니크한 색의 펜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
- 글씨를 지우고 싶을 시 화이트 사용 바랍니다.
- 연필 작성 시 최대한 번지지 않는 연필심(HB, B)으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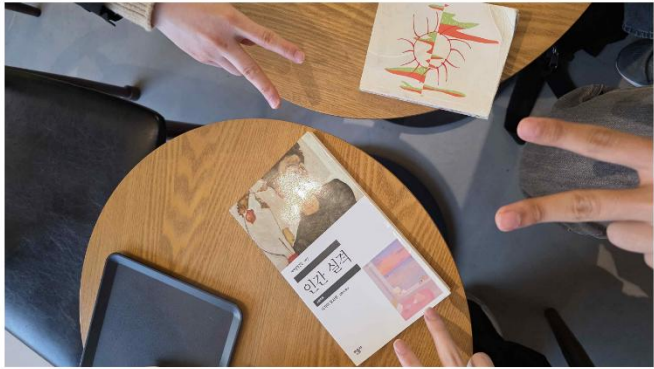
1. 첫 장에 [자기가 사용할 펜으로! 순번과 이름을 작성합니다.
2. 중간중간 글을 읽으며 떠오르는 소감 또는 생각을 책 여백에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여백이 없거나 쓸 말이 많을 경우 포스트잇을 활용합니다. ->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 2-1. 질문을 던지는 형식, 남이 남긴 코멘트에 답글을 다는 형식, 자신이 스토리를 추가/수정해보는 형식 등등 모두 가능합니다!
- 2-2. 단, 스포일러는 금지합니다. 🙏 남이 이미 쓴 글을 훼손하는 것도 안됩니다(여백 부족으로 인해 그 위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건 괜찮습니다). 🥰
3. 정독이 끝나면 마지막 공백 페이지에 이름과 함께 짧은 소감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은 자유입니다.
- 3-1.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다 읽지 못했을 시 뒷주자와 일정을 조율하거나, e북 또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여 개인적으로 독서를 마칩니다(이 경우 떠오르는 생각들은 개별 포스트잇에 써서 추후에 부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 일시	2026.03.31. / 18:00~18:45
활동 위치	리드엑스 카페
참여자 (총 8명)	최수환(반장), 전세령, 김주민, 우송민
활동 내용	<p><b>자기소개</b> : 학과/학번/이름, 등 간단한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p> <p><b>자유 도서 소개</b> : 자유롭게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개 후엔 질문 및 소개를 듣고 난 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했다.</p> <p>최수환 : &lt;기억 전달자&gt; - 로이스 로리  김주민 : &lt;당신 인생의 이야기&gt; - 테드 창  우송민 : &lt;자재장의 용도&gt; - 함윤이</p> <p><b>소감</b> :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정했던 주제인 SF소설을 가지고 서로 각자 읽어왔던 책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히 소설에 대해서 서로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설에서 이어져 나온 영화들까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 장르의 소설이라도 작가에 따라서 다양한 갈래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영화와 비교하여서 소설만의 다양한 장점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내가 몰랐던 책도 알게 되고 똑같은 책을 읽었더라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다.</p> <p><b>기타 활동</b> : 없음.</p>
비고	




서로 각자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사진.

활동 일시	2026.04.07. / 18:00~18:45
활동 위치	리드엑스 카페
참여자 (총 3명)	최수환(반장), 김보민, 전세령
활동 내용	<p><b>자유 도서 소개</b> : 자유롭게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개 후엔 질문 및 소개를 듣고 난 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했다.</p> <p>이민아 : &lt;이방인&gt; - 알베르 카뮈  정아인 : &lt;인간 실격&gt; - 다자이 오사무  한수연 : &lt;1984&gt;, &lt;동물농장&gt; - 조지 오웰</p> <p><b>소감</b> : 이번 시간에는 사전에 공지한 대로 서로가 생각하는 세계 고전, 문학전집 등에 있을 법한 명작들에 대해서 서로 읽어오고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유명한 책들이어서 그런지 서로 읽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들어본 경우가 많아서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 책의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혹시 번역본 대신 원본을 읽어보고 싶었던 적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였다. 단순히 준비한 책뿐만 아니라 고전에 다른 책들인 '싯다르타', '설국', '흰' 등의 다양한 고전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책을 소개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책을 읽는지, 무슨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p> <p><b>기타 활동</b> : 없음.</p>
비고	 <p>서로 가져온 책을 찍은 사진</p>

##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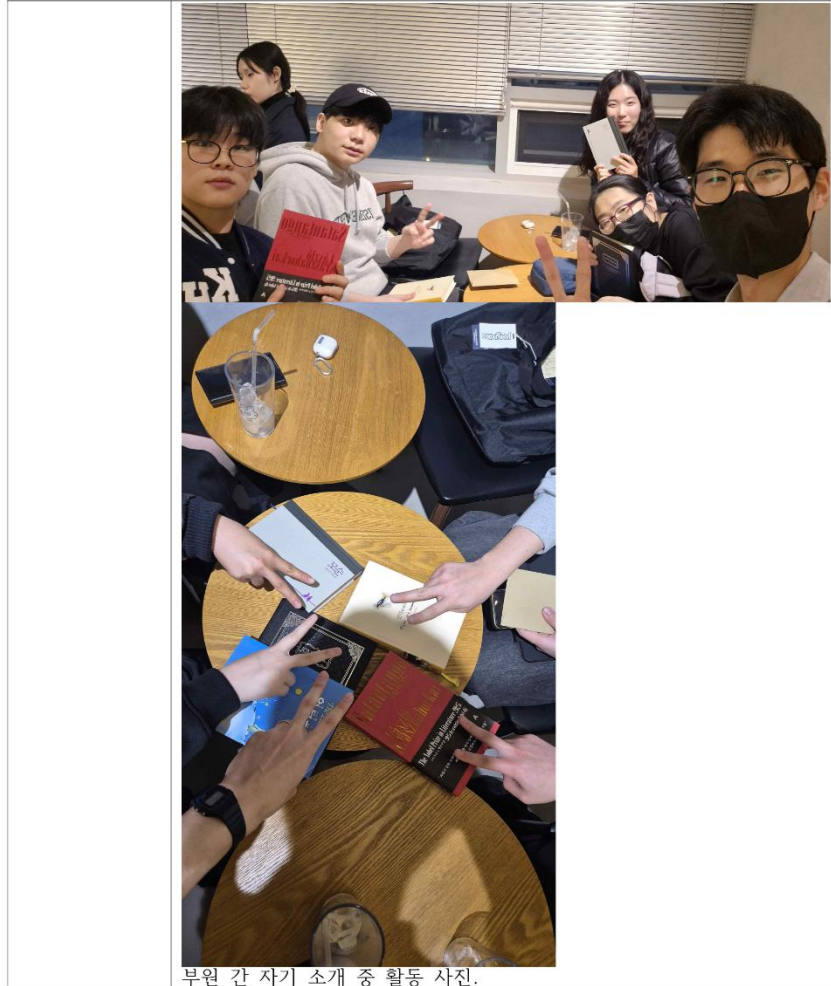
독서 G반 반장: 오대한

일시:	ex) 2026.04.01.16:40~17:40
위치:	ReadX 카페
참여자 성명:	오대한, 강지수, 박상선, 이종원
활동 내용:	<p>활동내용: 독서반 오리엔테이션과 본인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을 각각 들고 와서 간단한 소개와 소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들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p> <p>소감: 각자 다른 관심 분야와 주제, 문체와 취향이 겹치고 겹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나의 질문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었고, 아예 다른 주제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질의 의견 교류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p> <p>기타: 독서 모임 진행 모습을 활동 증빙 자료로 확보하였다.</p>
활동 사진 첨부:	<p>활동 사진 첨부:</p> 

##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H반 반장 : 조현재

활동 일시	2026.03.31. / 18:30~19:30
활동 위치	리드엑스 카페
참여자 (총 8명)	조현재(반장), 김가빈, 김지홍, 원은찬, 임서윤, 정세나, 정재영, 박채원
활동 내용	<p><b>자기소개</b> : 학과/학번/이름, 취미, 독서 모임 신청 이유 등 간단한 자기 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p> <p><b>자유 도서 소개</b> : 자유롭게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개 후엔 질문 및 소개를 듣고 난 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했다.</p> <p>조현재 : &lt;인간의 대지&gt;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김지홍 : &lt;모순&gt; - 양귀자          임서윤 : &lt;사탄탱고&gt; - 크리스너호르케이 라슬로          정세나 : &lt;헬프&gt; - 캐스린스토킷          박채원 : &lt;이상한 집&gt; - 우케쓰</p> <p>*원은찬/정재영/김가빈 3인은 일정 문제로 참여 X</p> <p><b>소감</b> : 각자 선정한 자유 도서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은 &lt;인간의 대지&gt;를 통해 실존의 가치를, 김지홍 회원은 &lt;모순&gt;으로 삶의 양면성을 화두로 던졌다. 임서윤 회원은 &lt;사탄탱고&gt;의 실험적 서사를 소개했고, 정세나 회원은 &lt;헬프&gt; 속 연대의 메시지를 조명했다. 박채원 회원이 소개한 &lt;이상한 집&gt;은 공간 구조와 미스터리의 결합이라는 지점에서 흥미로운 비평적 논의를 이끌어냈다. 도서 소개 후 이어진 토론을 통해 작품 이면의 주제 의식을 예리하게 포착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회원들은 서로의 고유한 시각이 교차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문학을 바라보는 사고의 지평을 확장했다. 특히 인문과 사회, 장르 문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류를 통해 문학적 안목을 한층 강화했다. 타인의 독법을 경험하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텍스트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활동은 회원 간의 지적 교감을 심화하고 독서의 깊이를 더하는 유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심도 있는 창작과 비평 활동을 지속하기로 하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p> <p><b>기타 활동</b> : 독서 모임 종료 후, 남은 부원끼리 인근 식당(키와마루아지)에서 부원 간의 친목을 다지며,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p>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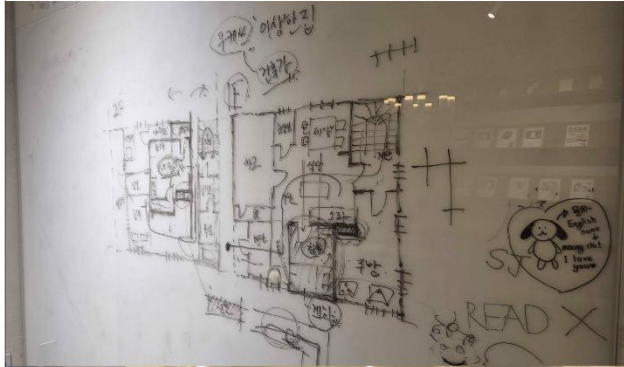


부원 간 자기 소개 중 활동 사진.

## <경희문학회> 독서반 활동 보고서

독서 I 반 반장 : 조현재

활동 일시	2026.03.30. / 18:00~19:30
활동 위치	리드엑스 카페
참여자 (총 8명)	조현재(반장), 김미주, 박유민, 엄수빈, 이세상, 이세웅, 전유원, 박채원
활동 내용	<p><b>자유 도서 소개</b> : 자유롭게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개 후엔 질문 및 소개를 듣고 난 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했다.</p> <p>조현재 : &lt;어린왕자&gt;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박유민 : &lt;불안&gt; - 양귀자                  엄수빈 : &lt;도넛을 나누는 기분&gt; - 연합시집                  박채원 : &lt;호밀밭의 파수꾼&gt; - J.D. 셀린저</p> <p>*이세상/이세웅/전유원 3인은 일정 문제로 참여 X</p> <p><b>소감</b> : 각자 자유롭게 선정한 도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며 다각적인 문학적 시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은 &lt;어린왕자&gt;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과 순수성에 대한 성찰을 공유했으며, 박유민 회원은 &lt;불안&gt;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엄수빈 회원은 연합시집 &lt;도넛을 나누는 기분&gt;을 소개하며 시적 언어가 주는 연대와 위로의 가치를 조명했다. 박채원 회원은 &lt;호밀밭의 파수꾼&gt;을 매개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과 성장의 의미를 화두로 던졌다. 도서 소개 후에는 각자의 독법을 공유하며 하나의 텍스트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 탐구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문학을 바라보는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이 활발히 참여하여 내실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평소 접하지 못한 장르와 주제를 접하며 문학적 취향을 확장하고 비평적 감수성을 강화했다. 회원 간의 지적 교감을 확인하며 독서 소모임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유익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활동에서 얻은 다채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독서 및 창작 교류를 이어가기로 하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p> <p><b>기타 활동</b> : 독서 모임 종료 후, 남은 부원끼리 인근 식당(꽃한뽕닭)에서 부원 간의 친목을 다지며,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p>
비고	부원 간 자기 소개 중 활동 사진.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조현재 (조현재인)